

國史教育의 課題와 方向

河 炫 綱

(延世大 史學科 教授)

I

大學에 있어서의 國史教育은 크게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공과목으로서의 국사교육이요, 다른 하나는 필수 교양과목으로서의 국사교육이다. 이 중에서 後者が 현재 대부분의 大學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大學에 있어서의 國史教育의 課題와 方向을 두 가지 면으로 나누어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大學의 機能이 研究와 教育에 있다고 한다면,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에서 가장 力點을 두어야 할 것은 전공과목으로서의 국사교육이라 할 것이다. 國史 研究를 深化시키고, 國史 專攻者를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사교육은 國史學界의 연구동향, 성과, 과제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은 더욱더 그러하다. 이미 주지하다시피 國史學은 1945년 8·15 해방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눈부신 성장을 하여 왔다. 그 결과 과거 日帝 植民地時代에 비해 韓國史의 面目을 一新하게 되었다. 그동안 國史學이 거

둔 성과는 가령 1982년에 歷史學會에서 펴낸 「現代 韓國歷史學의 動向(1945~1980)」을 통해서도 잘 엿볼 수 있다. 이러한 國史學의 성과와 발전은 직접 간접으로 국사교육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국사교육을 통하여 보다 올바르고 새로운 國史像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사교육의 현재는 매우 밝은 셈이며, 그 전망도 희망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국사교육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課題의 하나는 現行 學制上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現行 學制에 의하면,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大學에서는 國史學이 史學科의 한 분야로 되어 있다. 즉 國史, 東洋史, 西洋史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그 3분의 1의 비중만을 가지고 있다. 물론 大學에 따라서는 國史學科가 하나의 전공 학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수는 전체에 미하면 매우 적다. 따라서 전공과목으로서 開設할 수 있는 國史 관계 강좌의 수는 史學科가 개설할 수 있는 강좌수의 3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다.

하나의 學問 영역이 深化되고 다양해지면서 質的, 量的 성과가 쌓이게 되면, 그 연구동향, 성과, 과제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 학문 영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은 물론이다. 國史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國史學은 최근의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과거에 비해 훨씬 深化되고 多樣해졌다. 시간적으로는 先史時代에서 現代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분야별로는 政治, 制度, 社會, 經濟, 宗教, 學術, 科學, 技術, 文學, 藝術, 對外關係 등에 고루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으며, 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現行의 제한된 강좌수로는 國史學의 연구동향과 성과 등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기도 바깥 정도여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把握과 창의적인 研究에 도움을 주기 어려운 실정이다. 요컨대 상황은 크게 바뀌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 어려움과 아쉬움은 이른바 「實驗大學」의 실시와 함께 나타난 取得學點 감축으로 加重되었다. 전체 학점의 감축은 國史 관계 강좌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國史學의 일반적 발전에 따라 國史 강좌도 더욱 深化되고, 分化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國史 강좌의 統·廢合현상이 大學社會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實驗大學」의 실질적인 폐지 뒤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르는 制度的改善策이 모색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국사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도 몇 가지 當面課題가 가로놓여 있다. 그 중에서도 國史를 어떤 觀點에서 보고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는 문제가 우선 절실하지 않은가 한다. 1945년 8·15 해방까지는 王朝時代와 日帝 植民地時代의 歷史觀이 지배하여 왔으며, 해방 후에도 그 殘影은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특히 이른바 日帝 植民主義史觀의 害毒은 대단히 컸다. 해방 이후 國史學界는 그러한 낡고 그릇된 史觀을 拂拭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까지의 日帝 植民主義史學에 대한 비판에서 한결같이 강조된 것은 객관성이 없는 편파적인 비난이었다는 것이다. 즉 한국사의 부정적인 면만을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서 보았다는 것이다. 日帝 植民主義史學의 근본목표가 日帝의 한국에 대한 植民地 지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

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객관성이 없고 편파적이며 의도적인 韓國史觀은 학문적으로 용납할 수 없음은 두말할 나위조차 없다.

해방 이후 日帝 植民主義史學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國史學界가 그 연구활동에서 力點을 둔 것의 하나가 한국 사회의 內在的 發展에 대한 탐구였다. 그 결과 새롭고도 중요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어 새로운 國史像의 定立에 큰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들은 바로 국사교육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우리가 國史의 연구와 교육에서 유념할 것은, 혹시라도 不知中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사실 이상으로 美化하거나 긍정적으로 이해하고자 한 결함은 없었던가 하는 점이다. 사실 日帝 植民主義史學의 否定—邊倒의 韓國史觀을 비판하다 보면, 우리의 思考가 中庸을 잃고 그 반대방향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지나치게 긍정적인 觀點에서만 한국의 역사적 발전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하나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 과거 日帝의 植民主義史學이 그 객관성의 결여 때문에 학문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면,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좀더 넓은 안목에서 허심탄회하게 객관성을 견지함으로써 보편타당하고 체계적인 國史理解에 주력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III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필수 교양과목으로서의 國史이다. 전공과목으로서의 國史는 그 교육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비해서, 필수 교양과목으로서의 國史는 大學의 전체 학생이 교육 대상이어서 그 수가 무척 많다.

1970년대 중반부터 大學에서의 국사교육 강화의 정책적 배려로, 國史가 필수 교양과목으로서 자리잡기 시작하였으나, 그 출발부터 많은 문제를 수반하고 있었다. 우선 그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사 담당 教授陣의 확보가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現行 學制上 國史學科가 독

립되어 있지 않은 大學에서는 史學科에서 그 교육을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史學科는 國史·東洋史·西洋史의 세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결국 國史 專攻 教授가 담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國史 담당 교수의 절대수가 부족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실정 아래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은 대형 강의실에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여 강의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여건에서는 효과적인 강의가 이루어지는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전임교수의 부족은 교수 경험이 적은 新進들을 강사로서 충당하게 되었고, 이것은 학생들의 國史 교양과목에 대한 不滿 要因의 하나가 되었다. 近年에 大學의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한 設問에 의하면, 다른 교양과목과 함께 國史 교양과목에 대한 불만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하여 國史를 필수 교양과목으로서 부과한 것이 오히려 國史에의 무관심 내지는 反感을 가지게 하는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소리도 나오게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적으로는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또 이를 實行에 옮겼으나, 과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그 교육 효과를 거두었는지는 의문이다.

물론 국사교육을 강화하고, 또 그 국사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올바른 國史觀을 가지게 해야 되겠다는 점에는 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는 그 教育內容과 教授方法이다. 학생들은 이제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國史를 배워 왔다. 따라서 大學에서 부과하는 국사교육의 내용은 무언가 달라야 할 것이다. 이미 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되풀이해서 교육시킬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대체로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학생들의 教養國史에 대한 불만은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별 차이가 없거나, 그것보다도 못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선 강의 시간수와도 연관이 있다. 즉 大學에서의 教養國史 강의 시간수가 고등학교 과정에 비해 훨씬 적다. 이처럼 부족한 시간수

로써 대단위 강의실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대체로 공통된 고민이 아닌가 한다. 그리하여 담당 교수에 따라서는 강의 내용을 어떤 특정한 分野나 主題 또는 時代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즉 국사교육을 사회경제사, 사상사, 미술사 등의 分野別 중심으로 하거나, 또는 어떤 分野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主題를 설정하여 그 主題를 중심으로 강의하는 방법이 있으며, 혹은 時代別로 나누어 古代史 중심, 現代史 중심 등의 강의 방법이 채택되기도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한정된 강의 시간수로써 중·고등학교 과정과의 중복을 피하자는 고충에서 나온 것이며, 그런대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現行 學制上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분야나 주제, 또는 시대를 다루다 보면 國史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소홀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사실 大學에서의 國史教育을 필수 교양과목의 하나로 정하게 된 것은 학생들에게 특정한 분야나 시대를 전문적으로 가르치자는 데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보다 더 넓은 안목에서 새롭고 체계적인 韓國史 理解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 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그 개선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한정된 강의 시간수와 대단위 강의에서 효과적인 教授方法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현재 교양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課題이다. 어느 大學에서는 슬라이드나 텔레비전, 또는 특정한 主題를 다룬 기록영화 등 강의 진도에 맞추어 活用함으로써 좋은 교육 효과를 거둔 바도 있었다. 앞으로 이와같은 視聽 資料들을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 검토되었으면 한다.

IV

위에서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을 專攻科目으로서의 국사와 教養科目으로서의 국사로 나누어 잠깐 살펴보았으나, 그 어느 경우나 많은 문제

점을 안고 있음을 알게 된 것 같다. 특히 현재 필수 교양과목으로서의 국사교육에는 더 큰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이것은 事前에 그에 대한 준비나 대책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그 국사교육 담당자들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국사교육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임기응변적인 조치만으로서서는 효과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한 보다 더 근원적인 制度的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現在와 같은 史學科의 一部로서의 國史 전공 교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으로서, 전공과 교양 어느 것에도 충실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大學에서의 國史教育이 중요

하다면, 國史學科를 독립시키든지, 아니면 學制上으로도 國史學을 史學科 內의 독립된 전공 분야로 인정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 現行 學制上으로는 史學만을 하나의 전공으로 간주하고 史學科 內의 國史, 東洋史, 西洋史를 각각 별개의 전공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요컨대 大學에서의 확대된 국사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국사 專攻 教授陣의 확보가 그 선결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교수진의 充員은 위에서 말한 제도적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실제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大學에서의 국사교육은 큰 진통과 시련을 겪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전을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다. 다 함께 衆智를 모아 차분히 그 改善策을 연구하고 모색한다면, 멀지 않아 보다 더 바람직한 國史教育이 大學 사회에 실행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